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인권문제 소홀

5월19일 조계사에서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현상적인 유아독존'이라는 인권사상의 황금률을 제시했던 부처님 가르침에 어울리게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가 개최돼 사회적 관심을 끈 것이다. 그동안 인권문제에 미온적이었던 평가를 받아온 불교계가 소외되고 고통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인권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보인다. 97년부터 불교계는 몇몇 불교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양심수 석방운동,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운동, 윤이상가족 귀국추진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운동 등을 벌이며 불교인권운동을 사회 이슈화 시키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타종교인이지만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온故 계훈제 선생의 극락왕생을 위해 49재를 지내기도 했다. 장차수해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자들의 연락도 10여 개월째 조계사 마당을 차지하고 있다.

70~80년대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인권단체를 결성해 사회의 저소득층과 노동자·농민들의 인권확립에 적극적이었던데 비해 불교는 농성장 제공조차 여의치 않았을 정도로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과 비교하면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렇다고 불교하고 불교계는 인권문제에 아직도 소극적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대책위원회 소속 21개 인권단체중 개신교가 12개 천주교가 5개에 비해 불교는 1개뿐인 것이 그러한 현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동참의식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하지만 각 단체의 활동은 몇 달을 못가 호기부지대 버리곤 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불교는 초기불교이래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인권존중의 입장에서 서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카스트제도를 부정한 것에서부터 역대조사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찾으라'고 일깨워왔다. 따라서 불교계는 과거 투쟁지향적이고 선언적 인권운동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불교인권운동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국민 84% "종교문제 심각"

'광신으로 가정파탄' '사이비종교 확산' 등 이유 꼽아

종교법인법 제정 54.6% 찬성

코리아리서치, 5대 도시 거주 성인 5백명 설문

우리나라 국민들은 종교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또한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약간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교육방송(EBS)의 의뢰를 받아 5월 25일 실시한 '종교문제 및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한 태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서울 등 5대 도시 거주 20세 이상 성인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했다. 우리 사회의 종교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83.6%)이 심

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같은 반응은 모든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광신적 신앙생활로 인한 가정파탄에 대한 지적이 4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이비종교로 인한 이단교리 확산(34.8%), 성직자들의 부정부패(10.0%)였다. 종교문제 발생의 주원인으로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라는 지적이 3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직자들의 사리사욕(29.4%), 개인적 영복만 추구하는 종교의 특성(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만민중앙교회 사건으로 제정논란이 일고있는 종교법인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4.6%로 반대한다는 응답자(44.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무종교인과 불교신자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신자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이 종교별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종교법인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종교단체의 자격이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4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종교자유 침해 우려(49.5%)와 사이비 종교단체의 합법화 우려(50.0%)가 비슷하게 지적됐다. 종교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종교법인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건전한 신앙생활에 대한 사회교육의 필요성(55.8%)을 꼽았다. 다음으로 종교계의 자정 노력(24.8%), 종교문제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13.0%),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불교와 천주교신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계의 자정 노력에 대한 지적들은 개신교신자에서, 법적 처벌 강화는 무종교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교법인법 관련기사 3편



○불교계 각 종단의 스님·신도등 1천1백여명이 본단이후 처음으로 금강산 성지순례길에 올랐다. 출항에 앞서 배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대표단. 동해항=고영배 기자

반세기만에 금강산 성지순례

불교도 1천1백여명 신계사터서 '민족화합 법회'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범불교도 금강산 순례단이 2일 오후 동해항에서 현대금강호에 승선, 금강산으로 출발했다. 본단이후 최초로 이번 금강산 순례에는 조계종립 방장 보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진각종 성초통리경장 등 소속 각 종단 대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공우스님 등 스님 4백여명과 신도 7백여명 등 총 1천1백여명이 동참했다. 첫날인 2일 동해항 출항후 금강호 선상에서 영산

제 의식으로 봉행된 방생대법회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참가자 전원이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 노래를 합창했다. 5일까지 3박4일간 실시되는 이번 금강산 순례는 3일과 4일

두주로 나눠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법회를 갖고 구룡폭포와 만물상에 이르는 코스를 돌아보게 된다. 불교계는 이번 금강산 순례가 고통받는 북녘 동포들을 돕고 남북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불교계 통일운동의 활성화와 북한에의 사회문화재 복원 등 남북불교 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재보도> 한편 동국대학교 미술인회(회장 이진형)는 5월31일 금강산 법회에 모실 불상과 괘불을 금강산 순례단에 전달했다.

정성운 기자

지선스님등 5명 8일간 첫 공식방북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명진)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의 초청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북한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본단이후 내국인 불교계인사의 최초 공식방문이다. 이번 방북에 초청받은 인사는 지선(전 백양사 주지), 명진, 성조(조계종 사회부장) 스님과 유지원 김기창씨 등이다. 김원우 기자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인생 건강 교육 세무 법률 교리 종교 전문 상담실 운영합니다

세상살이 답답하고 공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교육 부부관계 세금 건강 법률문제 등... 나아가 불교를 제대로 신봉하고자 하는 불자라면 순간순간 만나는 의문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막상 어디를 두드리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는 가상공간 인터넷에서 때와 장소에 구애없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전문가의 진단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지며, 각 분야의 전문가 불자들의 지혜로운 답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릴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인생(대형스님) ▲건강(이근우 이희의대 신경정신과 교수·이민성 영재현의원장) ▲교육(교수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세무(한국세무사불자회) ▲법률(수원지역법조인불자회) ▲교리(조계종포교원 이재열법사) ▲종교(이경우 새종교연구원장)

※상담문의 : 부다피아(www.buddhapia.com)

구산선문 참선 기행

6월 : 사굴산문(굴산사지)·등명낙가사·보현사

6월에는 범일국사에 의해 개창된 사굴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굴산사지를 찾아갑니다. 현재 절터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보물 제86호)와 부도암(보물 제85호), 석조비로자나삼존불상 등을 통해 당시 번창했던 산문의 규모와 선사들의 향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해안 일출로 유명한 등명낙가사에서 참선 정진의 시간도 갖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범일국사 최초 창건 기념인 보현사도 함께합니다.

◇출발: 6월 26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안내: 김홍술(강릉시청 학예연구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34-22140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계과인회

생명나눔 6월 대법회

현행·확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1차: 6월5일(토) 오전 11시 부산 내인정사
◇2차: 6월14일(일) 오전 9시 서울 화계사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

통도사 성보지키는 문화봉사단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
20세기를 빛낸 큰스님들!
기념메달로 우리곁에.....

■규격
-소재 : 황동(금도금)
-지름 : 80mm
-케이스 : 고급 우단

■화폐를 디자인하는 전문 디자이너와 조각가가 디자인하고 조각하여 주화제조 방식과 동일한 압인(壓印)방식으로 제조한 고품위에달입니다. 문양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수집가치가 높습니다.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
한국조폐공사가 만들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
한국조폐공사는
21세기 세계조폐산업을 선도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경쟁력으로 똥친 조폐인
세계로 뛰는 한국조폐공사

제조처 **한국조폐공사**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E-mail: kbust@kmpc.com
http://www.kmpc.com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TEL 02)722-4162